

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53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케이비증권(주)
임 원	■ ■ ■ (前 대표이사), ○ ○ ○ (대표이사)
직 원	

## 2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제조치	
	원안	수정안
케이비증권(주)	과태료 50백만원	좌 동
前 대표이사 ■ ■ ■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(직무정지 3월 상당)	좌 동
대표이사 ○ ○ ○	문책경고	직무정지 3월

□ (수정의결 사유) 대표이사 ○ ○ ○의 경우 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前·現 대표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, ②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, ③ 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상품전략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단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‘직무정지 3월’로 수정하고,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#### 1.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지배구조법’)

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이하 ‘내부통제기준’)를 마련하여야 하고,

-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‘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,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,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’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,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,
-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TRS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## 가. 금융투자상품 출시·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□ 「지배구조법」 제24조 제1항 및 제3항,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9조 제4항,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

-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“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 운영규정”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,

- 위원회 위원 13인 중 ■■■■■■ 담당 부서장 및 ▲▲▲▲▲▲▲▲ 담당 부서장 2인을 제외한 11인을 상품판매 및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하였고,

-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여, ■■■■■■ 담당 부서장 및 ▲▲▲▲▲▲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안전 부결이 불가능(상품 출시가 가능)하도록 운영하였음
- 이러한 운영방식은 20xx.x.xx. 위원회에 상정된 ‘○○ ★★★★★ 1호’ 펀드(레버리지 xxx%)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, ‘○○ ★★★★★ 1호’ 펀드의 투자대상인 ○○ ☼☼☼ ☼☼ D-1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(전액손실)로 이어짐

#### 나.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-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,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,
  - 케이비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TRS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,
    - ■■■■■■는 TRS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세부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,
    - ■■■■■■는 20xx.x.xx. TRS 기초자산에 펀드를 추가하면서 TRS 거래부서에게 펀드내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후 거래부서의 이행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으며,
    -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환매가격 결정일만을 기준으로 증거금율을 관리하다가 20xx.x.x.에서야 비유동성 펀드에 대한 증거금율을 상향하였음



- 20xx.xx.x.~20xx.x.xx. 기간 중 ㉠ ㉡㉢㉣ ㉤㉥ D-1호 등 12개 펀드 및 ㉦㉧ 고유에 약정이익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TRS 평가금액 및 청산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케이비증권이 기수취한 TRS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#### 나. 근거법규

- 「지배구조법」 제24조 제1항, 제3항
-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, 제4항
- 「지배구조감독규정」 제11조 제1항, 제2항, <별표2>